



제야 아바디 김현수사장은 묵묵히 제 자리에서 외부에 비쳐지는 모습보다 내
실있는 내부관리에 집중하는 실속형 경영을 통해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일어
설 수 있다는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MONTHLY **KOFA**

코파의

창

Tel. 021-55797281,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Ruko Pinangsia Blok B-28, Karawaci Office Park

Vol. **52** 2019/01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신년사] “재외국민 보호는 대사관의 최우선 임무”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여 한인 동포사회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넘치고 뜻하시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2월 인도네시아에 부임하여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커다란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조코위 대통령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의 방문에 이어 9월 국민방한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무엇보다도 양정상이 개인적 친분을 더욱 돈독히 한 것은 향후 양국 관계 발전과 우리의 신남방 정책 추진에 있어 굳건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시안게임과 패러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 단일팀의 선전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각국으로 방송되었던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평창에서 움트기 시작한 평화의 기운이 이곳 자카르타에서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환희 뒤에는 우리 한인회를 주축으로 한 동포사회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생업을 잠시 접어두시고 민관협력위원회 활동에 앞장서 주셨던 모습, 경기장을 방문하여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힘찬 구호를 외쳐

주셨던 모습 하나 하나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룸복 지진에서 여러 피해를 입으셨던 동포 분들, 그리고 중부 술라웨시 지진/쓰나미 사태에서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그 가족 분들 역시 잊을 수 없습니다. 대사관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지만, 혹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울러, 재해 대처 과정에서 각 지역에 흩어져 계신 동포 분들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게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9년은 자카르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세안(ASEAN)과 한국이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우리 정부는 2019년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금번 정상회의는 이제 본 궤도에 올라 다양한 결실을 맺기 시작한 신남방정책에 대해 아세안 정상들의 협조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19

년 한 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및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자,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개최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식민과 독립투쟁의 역사를 함께 하는 양국 국민의 정서는 상호 이해와 공감의 원동력입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양국간 긴밀한 유대,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관계는 지속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동포 분들의 값진 노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사관은 동포사회와 함께 자랑스러운 인도네시아 한인 역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각종 재해와 재난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재외국민 보호는 제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사관의 최우선 임무입니다. 신속한 재난 대처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영사서비스 지속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동포 분들이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선할 점이나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사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해년 새해는 황금돼지띠의 해라고 합니다. 모쪼록, 인도네시아 한인 분들의 직장 및 가정에서 행운과 건강이 골고루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
주인도네시아대사 김창범

[신년사]

“한인 모두를 아우르는 한인회”



사랑하는 한인 가족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대내외적으로 굵직한 행사가 많았고 인도네시아에는 큰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모두가 힘을 모으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여 잘 감당하며 극복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속의 우리 한인인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며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첫 이주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물론 경영2세대 및 여성들도 한인사회의 중심축으로 합류하여 한인사회의 정서를 공유하고, 화합의 주체로, 한인사회는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조직이나 단체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나와 상대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대화로 그 간격을 좁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협력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한인사회가 그동안 걸어온 경로도 무시할 수 없으며 여러 사람과 뜻을 함께하며 전통과 주어진 현실의 조건 속에 목표를 위해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속의 사람들과 정서와 이해를 충분히 담아내야 하기에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며 한인 모두를 아우르는 한인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수고스럽지만 희망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꽃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열매는 더 먼 나중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씨앗과 꽃과 열매의 인연 속 어디쯤에 놓여 있습니다.

옛날의 미래가 지금의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인회는 앞으로도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한인사회에 봉사할 것입니다.

동포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에도 동포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양명연



PT. JEONGSUK TECH ABADI

■ Contractor ■ Engineering ■ Electrical & Supplier

“정직한 기술로 신뢰를 구축합니다”

● Tel & Fax : (021) 5566 2989 ● Email : baeksy68@hanmail.net ● MB : +62 811 903 144
● Jl. Sawo Raya 19B, Kel. Cibodasari, Kec. Cibodas Perumnas 1 Tangerang Banten 15138



[신년사]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동포사회”

2019년 희망찬 기해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치러 국제행사 개최의 가능성을 보았던 반면, 롬복과 술라웨시 지역의 지진 해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 교민 여러분이 고군분투했던 지난 1년이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았을 거란 짐작을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극복해 오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우리 삶에 큰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



쉬움을 되돌아보기 보단 새 마음 새 뜻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동포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의 새해는 지난해에 교민들이 보여준 저력과 노력 그리고 정성만큼 큰 꿈이 결실을 맺는 희망찬 한 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1월 1일 기해년 새해 아침.

승은호 코린도 그룹 회장

투자조정청,

내년 선거 후 외국인직접투자 회복할 것

토마스 램봉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청장(장관급)은 최근 내년 4월 대선과 총선이 끝나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영 안파라 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FDI는 올해 110억~130억 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토마스 장관은 앞서 이는 지난 4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토마스 장관은 “투자자들

은 정치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거 전에는 투자가 둔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역사를 되돌아 봐도 지난 20년간 투자는 예외없이 선거 전 침체하다 선거 후 빠르게 회복했다”고 말했다.

토마스 장관은 또한 “내년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세계 정세에 따라 투자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 신년하례 및 훈장·표창 전수식 열려



2018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와 현지 사회에 기여해 양국 국민간 우호증진에 공을 세운 개인에게 수여하는 한국정부 훈장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표창 전수식이 4일 열렸다.

이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전수식은 신년하례식과 함께 열렸으며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대사, 김영채 주아세안대표부, 양영연 한인회장, 한인사회 단체장과 한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훈장 및 표창 전수자는 다음과 같다.

△2018년 평화통일 기반구축 유공(목련장) 전민식 민주평통 상임위원 △2018년 평화통일 기반구축 유공(의장 표창) 이지완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자문위원 △제12회 세계한인의날(대통령 표창) 신만기 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고문 △제12회 세계한인의날(국무총리 표창) 최원금 자카르타발파해피센터장 △제55회 무역의날(산업부장관 표창) 최민석 코리너스 대표이사 △제55회 무역의날(산업부장관 표창) 정민경 코스맥스 대표이사 △제

20회 재외동포문화상 시대상 문인기 씨 △제20회 재외동포문화상 글짓기(초등) 우수상 김재이 양 등 8명에게 훈장과 표창이 전수되었다.

주인도네시아 대사 표창은 김명하 땅그랑반튼 한인회 비

대위원장, 하영빈 민주평통동남아남부협의회 위원과 설혜선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위원 등 총 38명이 수

상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BPJS, 건강보험료 체납자 처벌 강화 방침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JKN) 제도에 관한 대통령령을 새롭게 제정하고 신생아의 신규 가입 의무화와 보험료 체납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82호’를 지난 9월 18일자로 시행했으며, 규정에 따라 3개월 후인 12월 18일 일부 조항이 발효됐다.

새로운 규정은 JKN 가입자에 대해 아기가 탄생했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신생아의 가입 등록을 의

무화했다.

또한 1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피보험자는 가입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기존에는 체납 보험료를 최대 12개월분 지불하면 자격을 재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4개월분을 지불해야 가능하게 하는 등 조건을 상향 조정했다.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상급 의료 시설에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최대 3,000만 루피아)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JKN 제도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사회보장기관(BPJS) 측은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 등 과제에 대한 개선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과 열정으로 다가간다!

사 출

일반사출(TPU,ABS,PC,PVC)
프레스(알루미늄,신주,철..)
TPR,PU,PVC

금 형

일반 금형
프레스 금형

코팅

진공증착(멀티/알루미늄)
UV AUTO 코팅

스크린

인쇄

패드



PT. KEINTECH

Jl. Wisata Jangari KM 17 RT/RW 001/008 Desa Bobojong, Kecamatan Mande, Kab. Cianjur 43292 – Jawa Barat
Telp. : 0263-2294286, 0263-2294321, 0263-2294315 Fax : 0263-2294451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연결 트란스자바 고속도로 개통



▲ 조코위 대통령과 이리아나 여사가 20일 버스를 타고 트란스자바 고속도로를 달렸다. [사진: 조코위 대통령 공식 트위터]

자바 섬 북부해안에 있는 수도 자카르타와 제2 도시 수라바야를 연결하는 연장 760km의 트란스자바 고속도로(Trans Jawa)가 착공 40년만에 연결됐다고 2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트란스자바 고속도로는

2021년에 자바섬 북부해안 서쪽 끝에 있는 머락과 동쪽 끝에 있는 빠수루안까지 연결되면 총 길이가 993km가 된다.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은 20일 아침 버스를 타고 수라바야를 출발해 모조꺼르토, 꺼르토소노, 응아위, 스라켄, 솔로, 살라피가, 스마랑, 곤달, 바팡까지 349km 구간을 최대 시속 90km로 달리면서 중간에 내려 구간별 개통식에 참석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고속도로 투어에는 바수끼 하디물요노 공공사업부 장관과 뿌라모노아눔 국무장관 및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동행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개통식에서 “인도네시아 교통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오늘부터 자카르타와 수라바야가 고속도로로 연결됐다. 이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올해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

휴에 자바섬을 여행하는 시민들은 기존 국도와 새 고속도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여행하면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78년에 트란스자바 고속도로에 착수했지만 예산부족, 토지수용, 관료주의 병폐 및 건설회사 변경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1978년부터 2004년까지 242km, 이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75km를 건설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조코위 정부가 들어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에 616km를 건설해 마침내 자카르타와 수라바야를 고속도로로 연결하게 됐다. 나머지 동부자바주 반유왕이와 빠수루안을 연결하는 217km는 2021년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바수끼 하디물요노 공공사업 부장관은 새 고속도로 7개 구간을 성탄절과 양력설 연휴에 완전 가동하며, 내년 1월까지 고속도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프라 개발은 조코위 대통령 대선 캠페인의 핵심 이슈로, 고속도로, 항구, 공항 등 인프라를 완공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실현했음을 과시할 수 있다.

또한 트란스자바 고속도로 외에도 내년에는 20년 가까이 끌어온 도시철도(MRT)도 완공될 예정이다.

중부자바는 투쟁민주당(PDIP) 지지가 강한 지역이고, 동부자바는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단체인 나들나뿔 올라마(NU)의 영향이 큰 지역으로 조코위 대통령은 NU의 지도자인 마루 아민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이 지역의 지지를 공고하는 내년 대선 전략을 세웠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니 재무부, 수출입 전자 시스템 1월부터 운영



▲ 해루 관세국장(가운데)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수출입 절차의 전자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상호 이용하는 시스템 ‘PDE 인터넷(PDE Internet)’의 운영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세관감독사무소(Kantor Pengawasan dan Pelayanan Bea dan Cukai, KPPBC)에서 일제히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무부 관세국의 해루 국장에 따르면, PDE 인터넷은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다. 수입신고서(PIB)와 수출신고서(PEB)의 절차는 70개소에서, 수출입 화물 목록에 대한 절차는 83개소에서 각각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관세국은 일괄 운영을 위해 지난해 8월 이후 세관 직원과 수출입업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해 교육 및 주지 활동 등을 실시해 왔다.

해루 국장은 “앞으로 수출입 업체는 절차 지연에 따른 화물 체류를 막을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사업 환경 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결제 OVO 이용자 ‘파죽지세’ 확대... 1억 1,500만명 돌파



인도네시아 재벌그룹 리포(Lippo) 산하의 전자머니 포인트 서비스 ‘OVO(오보)’의 현재 이용자 수가 1억 1,5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1월부터 누적 거래 건수는 10억건 이상에 달했다.

현지 언론 인베스토 데일리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오보

운영회사 비전넷 인터내셔널(PT Visionet International)의 하리안토 이사는 “지난해 8월 서비스 개시 이후 올해 급성장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오보는 국내 303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배차 어플리케이션 ‘그랩(Grab)’과 다양한 소매, 전자상거래(EC)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다. 이용자의 77%가 자카르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카드 스캐너 대신 간편한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제휴 확대에 주력했다. 중소기업의 제휴 수는 올해 약 18만개까지 급격하게 확대했다.

내년은 보험과 중소기업대출, 할부 서비스 등 금융서비스에 진출할 예정이다.

한편, 하리안토 이사는 “비현금사회를 구축하는게 목표이다. 다른 업체와의 경쟁보다 국민의 약 90%가 현금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최대 과제이다”라고 덧붙였다.

 **PT. BOSUNG INDONESIA**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딩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크라카타우 화산섬에 새 균열 ... 붕괴시 쓰나미 재발 우려

“최악의 경우 6천만㎥ 규모 붕괴 발생” ...해안 500m 이내 경계령

인도네시아 순다해협을 덮친 쓰나미의 원인으로 지목된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에서 새로운 균열이 발견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의 드위코리타 카르나와티 청장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에 두 개의 깊은 균열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화산 상공에서 관측한 결과 바닷물 아래에서 연기가 솟고 있었고, 산 표면에도 연기를 뿜어내는 균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균열들이 상당히 깊고 서로 가까이 있다면서 “화산이 분화하면 균열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경사면이 약화



▲ 2019년 1월 2일 오후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 주 마카사르의 술탄 하사누딘 공항에서 목격된 쓰나미와 비슷한 모습을 한 적란운. [일간 콤파스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해 산의 일부가 재차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붕괴 규모는 최악의 경우 약 6천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순다해협 일대에 최고 5m 높이의 쓰나미를 발생시

켰던 지난달 22일 밤 붕괴(약 9천만㎥)보다는 작은 편이지만 위험하긴 마찬가지라고 드위코리타 청장은 강조했다.

그는 “해안에서 500m 이내에 머무는 이들은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순다해협 일대에선 지난 22일 밤 최고 5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해 최소 437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자바섬과 수마트라섬 사이에 위치한 화산섬인 아낙 크라카타우의 남서쪽 경사면 64헥타르(64만㎡)가 무너지면서 해저 산사태와 쓰나미가 연쇄적으로 유발됐기 때문이다.

이후 비교적 강한 분화가 뒤따르면서 아낙 크라카타우의 높이는 338m에서 110m로 줄었다.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은 지난달 말부터 분화를 중단했지만, 재난 당국은 조만간 분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서 화산 경보단계를 전체 4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심각’

수준으로 높여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지진과 화산분화, 쓰나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2004년에는 수마트라섬 연안에서 규모 9.1의 대지진과 대형 쓰나미가 일어나 인도네시아에서만 12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해 9월 말에는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가 술라웨시섬을 덮쳐 2천101명이 숨지고 1천373명이 실종됐다.

잇단 대형참사에 인도네시아 인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영자지인 자카르타포스트는 지난 1일 오후 남술라웨시 주의 주도 마카사르에 쓰나미와 비슷한 형태의 대형 적란운이 밀려오는 바람에 여객기 착륙이 지연되고 일부 주민이 공항 증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HANSHIN

AIR COMPRESSORS

(주)한신기계공업 인도네시아 총판대리점

인도네시아 한인기업과 함께 한 18년!!!

중부자와 서비스지점 오픈 !!!



NH 시리즈(피스톤 콤프레서)

국내 최대 판매, 유일 수출
피스톤 콤프레서 (1~20마력)



RCH 시리즈
(소형스크류 콤프레서)

설치면적 최소화, 경량화, 정숙화 실현
(5~20 마력)



AD-HT 시리즈
(일체형 드라이어)

에프터 쿨러, 에어필터, 에어 드라이어
일체형으로 설치면적 최소화.
입구온도 80℃ 설계로 더운 동남아
지역에 최적화.



GRH 시리즈 (오일 인젝션 콤프레서)

스크류 : 독일(GHH-RAND사)
세퍼레이터 : 일본



AL/CDH 시리즈 (오일프리 콤프레서)

완벽한 오일 차단, 최장의 운전시간 보장, 최고의 오일프리 스크류 사용
AL 시리즈 : Kobelco(일본) CDH 시리즈 : GHH-RAND(독일)



매월 정기점검 서비스

국내 구입가 보다 저렴한 가격

세계적으로 성능이 인정된
독일 GHH RAND 스크류사용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현지인 매니저 / MARIONO : 0812 961 8455

TANGER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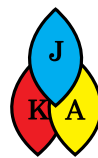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PT. JEYA ABADI KIMIA
INDUSTRY SHOE COMPONENT & POUNCHING



PT. WONJIN TECH IN
3D PUFF SCREEN / PRINTING / NOSEWING /



〈 PT. JEYA ABADI KIMA 김현수 대표〉



회사 정문에 도착해 로비를 들어서자마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라고 하면서 반겨주는 PT. JEYA ABADI KIMA 김현수사장은 우람한 목소리에 다부진 몸매와는 약간 다른 온화하고 자상한 미소로 취재진을 맞이해 주었다.

PT. JEYA ABADI KIMA



는 현재 땅그랑 띠가락사 밀레니엄 공단에 그 둥지를 틀어 탄탄하고 웅골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SHOES COMPONENT와 자회사인 PT. WONJIN TECH INDONESIA는 PUFF SCREEN, NO SEWING PRESS, EMBOSING을 생산하고있는 내실있는 기업으로 신발업계에서는 정평이 나있는 기업이다.

현재 한국인 2명과 현지직원 120여명으로 군더더기 없는 알찬경영을 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신뢰와 만족도에 최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현수 사장은 경남밀양 출신으로 37년간 신발산업에 몸담고 정통 신발인으로 살아온 경영인이다.

1981년 부산 확장동에 있는 주세원에 신발인으로 첫발을 딛은 김현수사장은 인도네시아 프라따마 기술부에 입사하게 되어 인도네시아에 첫 발을 디게 되었다.

이후 도순에서 약 10년차 근무하고 잠시 한국으로 귀국해

케미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주거래선이 인도네시아 진출한 대형 신발기업으로 탄탄하게 진행 하던중 2007년 거래처의 부도로 큰 위기에 처해 남 모를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보냈다.

그 즈음 인도네시아에 직접 진출해 새로운 시작과 승부를 걸어야겠다는 의지와 목표로 다시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현 PT. JEYA ABADI KIMA를 창업하게 되었다. 진출 5년후



현 땅그랑 띠가락사 밀레니엄 공단으로 이전해 기업 성장을 위한 둥지를 튼튼하게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2년 신발기업 프리마의 부도로 또 한번의 위기를 맞았지만 김현수 사장의 위기관리능력과 주변지인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

이후 자회사인 PT. WONJIN TECH INDONESIA를 창업하게 되었고 비로소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성장가도를 달리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PT. WONJIN TECH INDONESIA는 PUFF SCREEN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3D PUFF SCREEN의 선두주자



한 작고 강한 기업 PT. JEYA ABADI KIMA

DONESIA / EMBOSING

인 한국 원진과 기술 제휴해 이분야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한 기술을 가진 업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실제 잉크배합부터 작업공정까지 섬세하고 세밀한 공정이 필요한데 상당한 노하우를 요하는 작업으로 김현수사장의 오랜 경험과 기술이 녹아들어 있는 기술력을 보이고 있다.

한편 PT. JEYA ABADI

KIMA는 독일 바이엘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김현수 사장의 현직근무시 기술부에서 케미칼관리의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사에 최상의 품질을 공급하고 있어 2008년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PT. WONJIN TECH IN-DONESIA 역시 후발주자이지만 2014년 이후 안정세로 접어들어 고객만족에 한걸음 더 성큼 다가가고 있다.

정직, 성실, 노력이라는 경영이념을 직접 실천하고 사원교육을 통해 기업 내부의 질적인 향상을 꾸준히 도모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현지 관리자들과 5분 스피치를 통해 평소 하고 싶었던 생각을 맘껏

지고 있어 가족같은 회사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신뢰와 품질만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케미칼, 나염업계에서 사원과 소통의 시간들은 그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어 활기차고 힘찬 분위기의 기업 근로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고 있다.

특히 김현수 사장은 거창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사회봉사에 뜻을 두고 인도네시아 자생봉사단체인 인우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우회를 통해 현지인 한글교육과 불우한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봉사에도 적극



라며 겸손과 소양을 갖춘 김현수사장의 PT. JEYA ABADI KIMA와 PT. WONJIN TECH INDONESIA의 미래는 이제 푸른 기회와 성장가도의 힘찬 에너지로 발산 될 것으로 보인다.

신발산업의 한 모퉁이에서 언제나, 항상 제자리를 지키고 우리 신발산업의 보이지 않는 역할로 그 자긍심을 보여주는 김현수 사장의 미래를 함께 기대하며 함께 응원해 본다.

PT. JEYA ABADI KIMIA
Kaw. Industri Millenium Estate
F2/5 Peusar Jl. Baru Pemda
Tigaraksa, Peusar-Panongan-Tangerang - Banten
Tel : 021-2900 6941
Fax : 021-2901 7284
Email : jeyaabadikimia@gmail.com



〈 PT. JEYA ABADI KIMA 의 5분 스피치 이후 기념촬영〉

이야기하게 하는 토론의 시간을 만들어 상호간 생각의 간격을 좁히고 고통분담 및 사원과의 벽을 허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땅그랑으로 이전한 후 4년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상호 의사소통, 감성소통, 이념소통으로 이어

참여하고 있어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신발기업인의 한 사람으로 수많은 풍파와 좌절, 고통을 힘겹게 딛고 일어난 PT. JEYA ABADI KIMA 김현수사장은 차세대 신발산업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성장사례

를 보여주었으며 묵묵히 제자리에서 외부에 비쳐지는 모습보다 내실있는 내부관리에 집중하는 실속형 경영을 통해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뷰 내내 우리같은 작은 회사가 뭐 자랑할게 있나요

SunStar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회전 가마타입
- 가로300,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 FAST, ACCURATE SERVICE UP
-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SunStar
SWF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okh@sunstar.co.kr
kevinkang1103@gmail.com

미리 살펴본 2019년 신상품



리복의 플로트라이드 런 패스트 (FLOATRIDE RUN FAST) 플로트라이드 런 패스트는 쿠션과 반응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한편 경량의 디자인이 특징이다.

통기성을 강조한 메쉬 어퍼와 균형 잡힌 착용감, 플로트라이드 발포고무로 일상생활이나 실제 경기에서도 가벼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미리 살펴보는 최고의 러닝화 신상품들 290개 이상의 브랜드들이 2018 러닝 이벤트 (The Running Event 2018)에 참석해 최상의 신상품을 선보였다. 신발에서부터 양말까지, 의류에서부터 인솔, 마사지 롤러, 백팩까지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올해로 13회를 맞은 러닝 이벤트가 지난 11월 28 ~ 30일까지 텍사스 오스틴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머렐의 MTL 아스트럼 (MTL ASTRUM)

머렐 테스트 랩에서 개발한 겨울 트레일 러너는 눈이 신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칼라가 특징으로써 체온이 발로 향하도록 디자인했다. 이 신상품은 스노우타이어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써 겨울 지형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비브람 러그 (Vibram lug)를 사용했다.



361 디그리의 361 스트라타 3 (361- STRATA 3)

361- 스트라타 3는 플러시 섬유를 두툼하게 사용해 안정감을 높인 신발로써 모르핏 (Morphit)이라는

새로운 어퍼 레이스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모르핏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신발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차원 디자인이다. 스트라타 3는 퀵 스파인 (QUICK Spine)과 내측 지지대를

사용해 편안함과 유연성,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호카 윈 윈의 링컨 (RINCON)

링컨은 호카 윈 윈에서 출시한 상품 중 최경량 운동화로써 호카 윈 윈의 시그니처 호카 쿠션을 장착하고 있으며

최저가로 최상의 착용감을 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효율적인 전방 롤오프 효과를 내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메타로커 (Meta-rocker)를 장착한 링컨은 남성용 9 사이즈가 7.5온스의 무게 밖에 나가지 않는다.



토포 애슬레틱의 팬텀 (PHANTOM)

팬텀은 토포의 상품 중 가장 고급인 플러시 소재로 만든 로드러닝 슈즈로써 독점적인 미드솔 쿠션인

집폼 (ZipFoam)을 사용해 쿠션을 강화하고 기존의 EVA보다 반동성을 높였다.

공학적인 메쉬 어퍼는 통기성과 안정감, 강도에 최적화되어 있다.



스케처스의 고런 레이저 3 하이퍼 (GORUN RAZOR 3 HYPER)

Meb의 공식적인 운동화인

고런 레이저 3 하이퍼는 하이퍼 버스트 (Hyper Burst) 발포 고무를 사용한 최초의 신발이다.

따라서 반응성이 매우 좋으며 초경량에 내구력이 좋은 하이퍼 버스트 쿠션이 장점이며

발 중앙의 스트라이크 존을 개선해 걸음걸이의 효율성도 강화했다.



히키스의 레이싱 시스템 (LACING SYSTEM)

히키스의 2.0 레이싱 시스템은 맞춤형 고기능 탄력성이 특징인 신발로써 슬립온 형태로 디자인해 미적인 측면을 강화했다.



호카 윈 윈의 클리프톤 6 (CLIFTON 6)

클리프톤 라인의 최상 품질을 구현한 “6”에서는 부드러움과 경량이라는 특징을 내세우고 있다.

클리프톤 6는 보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착용감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 무게를 내지 않고도

잠금 기능을 개선한 자수 방식의 디자인을 추가했다.



클라우드스트라투스 (CLOUD-STRATUS)

클라우드스트라투스와 특별한 이중 구조의 클라우드텍 (CloudTec)은 기존 클라우드 라인에서 레이어를 낮춰

걸을 때 쿠션감을 강화했다. 이중 레이어로 잔여 충격을 흡수하고 추진력을 추가했다.

8mm 높이의 굽을 추가했지만 무게는 10.7온스 밖에 나가지 않는다.



암핏의 프리사이스 M+S 인솔 (PRECISE M+S INSOLE)

프리사이스 머드+스노우 (Precise Mud+Snow)

머드+스노우 (Precise Mud+Snow)는 트레일 러닝 인솔로써 앞핏의 안정적인 H-1-5 플랫폼과 이중 밀도의 발포고무 밀창을 결합한 것이다. 그리고 추운 기후에는 따뜻함을 더하고 따뜻한 계절에는 시원함을 주기 위해 울 패브릭으로 감쌌다.



스피라의 피닉스 (PHOENIX)

피닉스는 대부분의 발 형태에 맞춘 새로운 맞춤형 개발 상품이다.

미드솔은 특허 받은 웨이브 스프링 (WaveSpring) 기술과 부드러운 밀도의 힐 스트라이크 쿠션 패드를 결합해 만들었다.

탁월한 선택, 후회없는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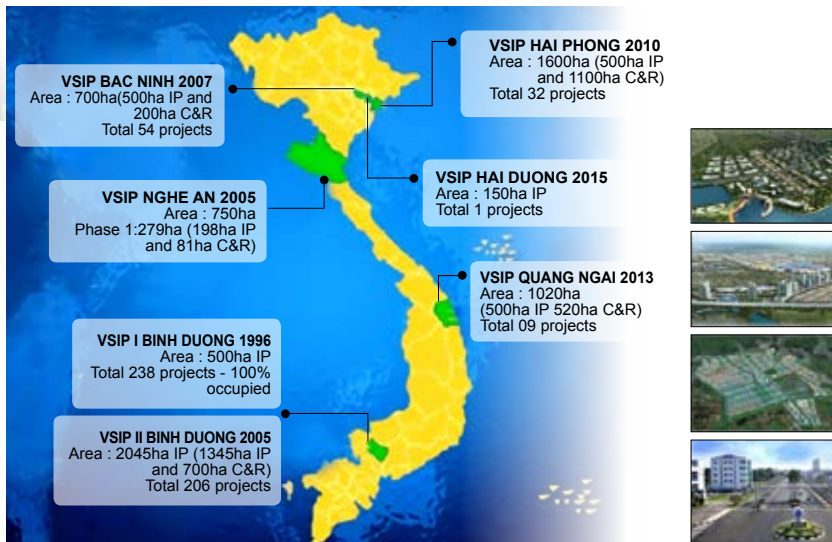
Kendal / Park By The Bay



산업단지 문의 : 박병현 팀장 (문의메일 : Park.byunghyun@sembcorp.com)
한국 : (82)010-9081-0424 / 베트남 : (84)012-7828-7293

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



2019년 해외 영사서비스가 달라진다



외교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2018년 1단계 사업 수행의 결과, 2019년 3월부터는 새로 구축된 영사민원 포털을 통해 해외 체류 우리국민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 국정과제 「10-3. 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 혁신」 이행을 위해 '18~'20년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으로 외교부가 추진하며, 주요내용으로 △영사민원 포털, △재외공관 민원행정, △재외공관 업무 인프라 개선 등이 있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즉시 국내 민원포털 서비스와 동일하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인쇄가 가능하다.

기존에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불하였던 서류 발급 수수료가 온라인 발급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다수 재외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외공관 민원 처리 진행현황에 대한 알람서비스, △기본증명서 등 주요 행정문서에 대해 다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번역된 민원서식 제공, △국가별 재외국민 맞춤형 민원 처리 정보 안내 등 해외 민원서비스 정보를 새로 구축된 영사민원 포털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외교부는 2018년중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재외공관 공증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9년 4월부터는 주일본대사관 및 주LA총영사관이 공증한 금융위임장을 국내 은행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시행 재외공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체류 우리국민에 대한 24시간 양질의 재외국민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6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를 내년부터는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는 우리국민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베트남어를 추가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해당지역 서비스 언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일반여권(남색)

관용여권(진회색)

외교관여권(적색)

▲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 디자인 (외교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12.17.(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9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 10.15 공개한 여권 디자인 시안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중 차세대 전자여권

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 여권신청, 우편배송 서비스 및 여권진위확인 등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여권 상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이후에도 현용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권 교체에 따른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소지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발 브랜드 데상트·힐라 R&D ‘부산행’

힐라, 데상트 등 세계적 인지도를 갖춘 신발 브랜드들이 잇달아 부산에 연구개발(R&D)센터를 들여오고 있다. 경기 악화로 움츠러든 지역 신발업체의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힐라코리아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힐라코리아는 부산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이하 신발허브센터)에 연구개발센터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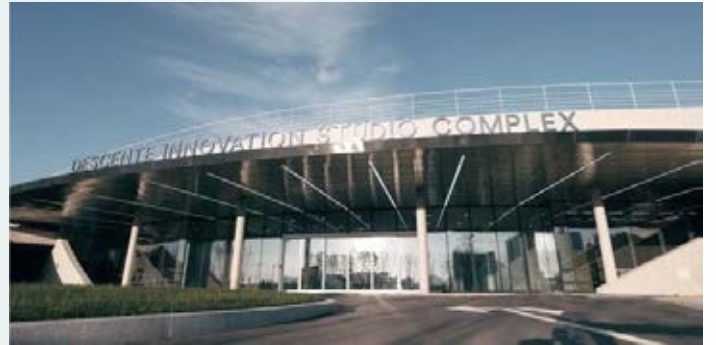


기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힐라, 신발허브센터 입주 예정 데상트, 명지신도시에 개소 지역업체 OEM 등 과급 기대 시에 따르면 힐라코리아는 연구개발센터 운영을 위해 신발허브센터에 400평가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예정업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시 관계자는 “힐라코리아 뿐만 아니라 케이투코리아(주), 알디엔웨이, 광장이노텍 등 부산 외 지역 신발업체 5곳의 지사를 신발허브센터로 유치



했다”며 “힐라코리아가 신규개발한 상품 물량을 지리상 가까운 지역 생산업체들에 맡긴다면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업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부산지역 대학·연구기관과 산학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앞서 데상트코리아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외국인투자기업 부지에 세계적 규모의 연구개발센터인 ‘디스크(DISC)’를 10월 개소했다.

데상트코리아는 연구개발센터 건설에만 600억 원을 투자했고,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연구개발을 위해 쏟아부을 방침이다.

인체공학, 운동역학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뤄지며 러닝화와 아웃솔(구두창 중에서 바닥에 닿는 부분) 개발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내부 연구시설? 데상트코리아 제공

데상트코리아는 신발 협력업체가 대부분 부산에 있고 학계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부산을 연구개발센터의 적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각종 트랙 등 신발 테스트 환경을 위한 넓은 부지가 필요했던 것도 한몫했다.

데상트코리아 관계자는 “연구원과 디자이너를 포함해 1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지역업체를 비롯해 부산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이키, 아디다스처럼 최정상급은 아니지만 세계적 인지도를 갖춘 신발업체가 부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설부른 낙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8-12-03 부산일보〉

대한민국 No.1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중유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株式会社 三湖ボイラー
SAMHO BOILER CO., LTD.
www.samhoboyler.com

PT. HANSHIN AIR COMPANY

자카르타 : 유성열 Hp : 0812 1902 2247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한상윤 Hp : 0822 9999 1447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빛과 산소로 만든 4D 미드솔 탑재! 아디다스가 최신 러닝 슈즈를 발표



아디다스(adidas)는 최신 기술의 집결체인 미드솔 ADIDAS 4D를 탑재한 최신 러닝 슈즈 ‘알파 엣지 포디(ALPHAEDGE 4D)’를 11월 17일부터 발매했다.

ADIDA 4D는 아디다스가 17년에 걸쳐 축적한 스포츠 선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실리콘 펄리에 본사를 둔 카본사의 디지털 라이트 합성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개발한 것으로 빛과 산소로 만든 차원이 다른 구조의 미드솔이다.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디지털 설계되어 있으며 미세한 그리드가 스프링처럼 추진력을 발휘한다. 동시에 그리드가 넓어져 착지 시의 충격을 분산시킨다. 또한 팽팽하게 당겨진 그리드가 발을 슈즈 중앙으로 고정시켜 가로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서포트한다.

어퍼에는 경량의 포지파이버로 제작한 프라임 니트를 사용하고 있다. TPU 코팅 한 실을 한 줄 씩 밀리미터 단위로 겹쳐서 만든 어퍼는 양말처럼 발을 감싸주나, 실의 각도와 밀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서포트성과 핏감을 향상시켰다.

아웃솔에는 내구성이 좋은 컨티넨탈 러버를 사용. 노면 상태나 기후에 상관없이 안정된 그립감을 발휘한다.

판매점포는 아디다스 온라인숍, 아디다스 브랜드 코어 스토어 시부야, 하라주쿠, 신주쿠, 오사카, 아트모스 시부야, ABC 마트 그랜드 스테이지 긴자, 하라주쿠. 500컬레 한정이다. 가격은 3만 8000엔+소비세다.

아디다스 브랜드 코어 스토어 신주쿠 한정, 다른 컬러를 50컬레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다.



스포티 & 페미닌 ‘푸마 뮤즈’ 에 메탈릭 파트가 화려함을 더하는 새 모델

푸마(puma)는 푸마 뮤즈의 새 아이템 ‘푸마 뮤즈 마이아 럭스(LUXE)’를 발표했다.

이번 제품은 댄스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것으로 슬립온 스타일의 로켓 부츠다.

이벤트가 많은 연말연시에 패션의 완성인 슈즈의 럭셔리 아이템으로 제격이다.

앞뒤 둘로 나뉘어 있는 아웃솔과 측면에서 발 뒤꿈치로 이어지는 러버 스트랩이 특징이며 메탈릭 파트가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함을 연출하고 있다. 스포티하면서 시크한 스트리트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다.



나이키, 두바이에 대규모 매장 열어

나이키가 두바이에서 새로운 매장을 열었다.

나이키의 최근 주력 상품들이 패션 애브뉴에 위치한 두바이몰 2층의 3만5,400평방피트 규모의 매장에 전시됐다. 이 매장은 여성 살롱과 맞춤형 스니커즈 및 의류 공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새로 문을 연 매장에 들어서는 모든 고객들은 단지 상품을 제공하는 곳 이상의 몰입형 쇼핑 경험을 하게 될 것” 이라고 FDRA의 Matt Priest CEO는 설명했다.

NPD 그룹의 Matt Powell 선임 고문은 두바이는 나이키가 새로 개척할 만한 이상적인 도시라고 말했다.

“두바이는 매우 강력한 소비 시장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고 Powell 선임 고문은 말했다. “미국과 같은 것을



▲ 나이키의 두바이 신규 매장 내부

▲ 두바이에서 개점한 나이키 신규 매장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것이 나이키가 두바이에 문을 연 이유다.”

“새로 문을 연 매장에 들어서는 모든 고객들은 단지 상품을 제공하는 곳 이상의 몰입형 쇼핑 경험을 하게 될 것” 이라고 FDRA의 Matt Priest CEO는 설명했다. NPD 그룹의 Matt Powell 선

임 고문은 두바이는 나이키가 새로 개척할 만한 이상적인 도시라고 말했다.

“두바이는 매우 강력한 소비 시장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고 Powell 선임 고문은 말했다. “미국과 같은 것을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것이 나이키가 두바이에 문을 연 이유다.”

kakaoVX
teeup VISION SCREEN GOLF™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Investment Opportunities to a Human resources

PT. TEEUP VISION INDONESIA
+62-813-1129-8822



크록스, 공격적인 사업 전략으로 주가 상승



크록스가 블랙스톤 캐피탈 파트너스 VI LP (Blackstone Capital Partners VI LP)가 보유한 우선주 일부를 환매 및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한 다음날 크록스의 주가가 급등했다.

블랙스톤은 2014년 1월 2억 달러 투자의 일부로써 크록스의 주식을 매입했으며 6%의 배당금과 주당 14.50달러의 전환 가격을 가질 수 있었다. 크록스는 우선주의 절반인 690만 주를 주당 26.64달러에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랙스톤도 즉시 남은 690만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고 해당 주식을 9개월 동안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양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블랙스톤은 향후 이사 임명권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크

록스는 사모펀드 투자회사에 1,5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뉴스는 최근 실적을 내지 못한 170개 매장과 회사 소유 제조 시설을 폐점하고, 드류 베리모어 등 A급 유명인사를 모델로 기용하는 등 공격적인 턴어라운드 계획을 발표하고 나선 크록스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주당 수익의 증대가 즉각적이면서 장기적인 성장 모델”이라고 Steve Marotta 애널리스트는 분석했다.

“당사는 전략적인 우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브랜드와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주식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Rees 회장은 덧붙였다.

출처 : Footwear News



뉴발란스, 크리스마스 맞아 화려한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을 사용한 신상품 선보여

뉴발란스의 시그니처 “N” 로고가 크리스마스과 연말을 맞아 화려해졌다.

지난 3월, 뉴발란스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장식한 NB1574 제품과 리미티드 에디션 574 실루엣 버전을 출시했다. 그리고 최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또 다른 반짝이는 화려한 신상품을 발표했다.

화려한 색의 크리스탈이 특징인 이 두 가지 신상품은 블랙, 그레이,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이 스니커즈는 다공성 스웨이드로 앞쪽 등반이 부분과 베이 스 칼라, 텅 등의 디테일을 만



▲ 로즈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장식된 리미티드 NB1 574

들었다. 새로운 액센트 소재는 진주 빛깔의 프리미엄 레더와 골드와 로즈골드, 실버색인 메탈릭 레더, 메탈릭 엔트러사이트로 된 시즌용 합성 소재로 제공됐다.



▲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장식된 리미티드 NB1 574

300달러의 출고가 붙은 이 신발은 미국, 유럽, 중국, 캐나다 및 일본의 NB1 맞춤형 플랫폼에서만 독점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크리스탈 색의 리본 레이스를 추가로 증정했다.



▲ 파콰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장식된 리미티드 NB1 574

공지사항

KOFA 소식지는 알차고 참된 내용으로 회원사 소식과 정보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 회원사 주소 및 이메일 변경 등으로 협회에서 공식 공문 및 소식 전달에 애로가 있어 회원사 정보를 정리하여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고자 합니다.
 - 회사명
 - 대표자 (회원) 성명 : 한글, 영문
 - 개인 핸드폰번호
 - 회사 전화번호
 - 회사주소
 - 사용 가능한 이메일주소
 - 홈페이지 주소
- 코파 소식지는 현재 주소가 있는 회원사는 우편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파 소식지가 우편으로 도착하지 않으면 위 정보를 다시 한번 협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dokofa@gmail.com 문의전화 : 021-5579-6569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고 등급 획득

-자산, 조달구조, 위험관리 체계 등에서 높이 평가받아 가장 높은 신용등급 획득



신한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이 인도네시아 신용평가 기관 ‘페핀도(PEFINDO)’로부터 최고 등급인 ‘AAA’ 신용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PEFINDO’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신뢰받고 있는 평가기관으로 ‘PEFINDO’가 부여한 신용등급은 인도네시아에서 기업 신인도의 주요 척도가 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신용등급 획득을 준비해 온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2016년 12월 출범 이후 길지 않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자산구조, 다변화된 조달구조, 세분화된 위험관리 체계 등에서 높이 평가받아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획득했다. ‘AAA’ 등급은 인도네시아에서 만다리(Mandiri)은행과 BRI은행 등 국영은행, BCA은행 등 대형 민영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등급이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이번 신용등급 획득에 따라 대외적으로 높은 공신력을 얻어 더욱 원활하게 국영기

업 및 대기업의 예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CD, 채권 등을 발행할 수 있어 중장기 자금조달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됐다.

한편,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현재 자산 12조 루피아, 부실채권(NPL) 비율 0.8%로 빠른 성장 속에서도 건전성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산규모가 10배 이상 큰 인도네시아 국영은행들과 동등한 신용등급을 획득했다”며 “자금조달 구조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 가겠다”라고 말했다.

도서출판/인쇄 광고

카다록
도서출판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카렌다
행택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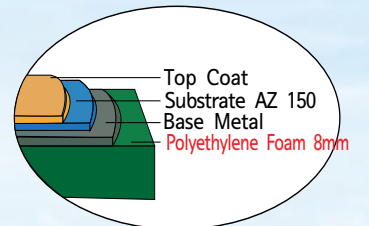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로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x 35mm
2. 25mm Trimdek
1040mm x 25mm
3. 35mm Spandek
920mm x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x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x 55mm
6. Genteng Metal (기 와)
82mm x 35mm x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北美정상 두번째 담판은 어디서...베트남 · 인니 등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가 가시화하면서 회담 장소로 어디가 낙점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통령 별장인 데이비드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양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협상하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회담 장소 후보지를 놓고 직접 협상을 벌일 정도로 2차 회담 준비가 상당히 진전되는 모양새다.

회담 장소 선정은 정상회담 준비 절차에서도 최대 난제로 꼽힌다. 회담 개최지를 정하지 못하면 회담 일자를 확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최대 관심사다.

미국과 북한은 개최 후보지의 정치적 의미와 상징성, 실용성, 접근성, 홍보 효과 등을 기준으로 어떤 장소가 자국에 유리할지 저울질하며 치열한 ‘밀당’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지 리스트를 두고 협상에 임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주목할 대목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3곳을 검토 중이라며 “항공기 비행거리 내(within plane distance)”라고 언급한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기의 이동능력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돼 지리적으로 북한과 비교적 가까운 아시아 국가로 낙점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비행거리 내 정치적 의미 · 접근성 감안... 몽골 · 판문점 등도 거론 트럼프, 지난달 “비행거리내” 언급 주목...유럽선 스웨덴 물망



다만 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북한 양국에 부담이 적은 정치·외교적 ‘중립 무대’가 유력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도 지난 3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2차 정상회담을 아시아 국가에서 여는 방안이 선호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교관들과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미국 하와이,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등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베트남은 회담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국가로 꼽힌다.

CNN에 따르면 베트남 고위당국자들은 작년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자국에서 개최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비슷한 시점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베트남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북한이 베트남에 자국 대사관을 두고 있고 비행 거리상으로 비교적 부담이 적다는 점도 이점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와 함께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길 희망하는 북한이 베트남식 ‘도이머이’(개혁·개방 모델)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도 고려 요소다.

미국 입장에서 베트남이 과거 적대국이었지만 최근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맞서고 있는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 이벤트’ 장소로 고려할 만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몽골도 후보지 물망에 오르내린다.

과거부터 비동맹 국가의 수장 역할을 해온 인도네시아는 정치·외교적 중립국이라는 조건에 맞는다.

오래전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 완화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온 인도네시아는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회담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바 있다.

미국이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9년에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미 3자 회담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추진하려 했다는 사실이 최근 미 외교 기밀문서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당시 문서에 따르면 미 정부는 자카르타를 택한 이유와 관련, “자카르타는 3자의 공식 외교 대표부를 모두 두고 있어 3자 대화에 참석하는 대표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몽골 역시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를 자임하

면서 회담 개최지 제공 의지를 밝혀왔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지리적 거리가 가까운 게 큰 이점으로 꼽힌다. 북한에서 몽골까지는 중국을 경유해 기차·차량 등 육로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남북 분단의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도 여전히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추구한다는 취지에 부합할 뿐더러 철저히 통제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경호 부담도 적다.

다만, 판문점이 비핵화 이해 당사국에 속하는데다 장소의 상징성 때문에 미국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판문점은 1차 정상회담 때도 유력 개최지로 거론되다가 막판에 배제됐었다.

작년 6월 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대면한 싱가포르에서는 이번 2차 정상회담 후보지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 개최된다면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중립국들이 잠재적 후보군에 속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져 개최지로 낙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스위스의 경우 김 위원장이 어릴 적 유학 생활을 한 곳으로 현지 사정에 밝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백악관이 북한측에 회담 장소로 제안했으나 이동·수송 등의 문제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9년 북미정상회담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